

곡성군,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성공적'

30명 선발…2월부터 5개월 간 지역 농가 지원

농가 만족도 최고…“내년 사업 확대 추진 계획”

“곡성 농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준 라오스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

라오스에서 곡성군에 계절근로자로 왔던 30명이 5개월간의 농가 지원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라오스 모양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행사를 진행했다.

환송행사는 이기동 군수 권한대행과 김완 솔 곡성농협조합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출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곡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했다. 라오스 모양타파발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선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곡성 전 지역 농업 현장에 투입했다.

총 공급 연인원은 2788명. 1022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팔기와 블루베리, 멜론 수확, 논·밭 제초, 배·시과·작과 등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

곡성군과 농협은 성공적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작업 현장에 투입하기 전 근로자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농가 만족



곡성군은 최근 라오스 모양타파발 출신 계절근로자 출국 환송행사를 진행했다.

도가 매우 높았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여건과 체류환경을 정비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파종기와 수

PEOPLE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사학연금, 신규직원 대상 청렴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올해 체용한 신규직원 1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1부 교육에서는 신규자가 꼭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정책과 법령 학습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등)을 주제로 2부 교육에서는 사학연금의 일원으로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는 물론,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고, 신고센터와 상담장구 이용에 대한 모의훈련으로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진열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학연금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청렴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효령노인복지타운은 24일 마을상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마을 주민과 타운회원,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함께 즐기는 우리마을 한바퀴’ 환경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벌렸다.

인근 마을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상생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운 날씨에도 구실땀을 흘리며 함께해주신 마을주민들과 효령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ESG경영

트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남 효령타운 본부장은 “효령타운에서는

2024년 신규 주력사업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나주愛 즐기는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 빛가람호수공원서 쓰레기 줍기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시민 50여명과 함께 ‘나주愛 즐기는 마실,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도내 10개 시군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COP33 전남도 유치를 위해 2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자원순환교육지도사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20여명과 에너지사랑광주전남지부, ESG환경실천지킴이 등 환경 단체들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 분리배출 장려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과장급 전보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초임 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본사방문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서용규 ” 제1부의장

△채은지 ” 제2부의장

△정다은 ” 운영위원장

△안평환 ” 행정자치위원장

△최지현 ” 환경복지위원장

△박필순 ” 산업건설위원장

△명진 ” 교육문화위원장

전남도,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모색

보건의료정책 워크숍…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 등 논의

전남도는 24일 시군 보건소장,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전남 보건의료 현안인 의료기부처와 이에 따른 지역 내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의 ‘보건기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주제 강연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보건기관이 1차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방문보건, 커뮤니티케어까지 확대하는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전공의 사직, 의대생 집단 휴

학 등 공중보건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

보건기관의 비대면 진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협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제공

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비 사

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사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대비 사전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온세 (음력 6월 20일)

48년생 자녀의 일이 막하고 고민한다
60년생 동남쪽에 투자는 절대 안 된다
72년생 여인으로 유틸리티 심정에 빠지리라
74년생 여사랑을 공경하면 복이 들어온다
96년생 진취적으로 행동하라

51년생 제약이 끄를 수 있지만 문제는 없다
63년생 이의이 생겨 희색이 만연 하리라
75년생 여지없이 승진·전출하게 된다
87년생 나의 진심을 알기주는 때다
99년생 새 길을 선택할 때

54년생 가기운 사람에게 일을 조심
66년생 소원을 풀 수 있다
78년생 후배와 상의하면 해결 되리라
90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57년생 뇌물은 적은 것이라도 돌려주라
69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81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93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58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70년생 길동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82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다
94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49년생 의심스런 문언이나 경계하라
61년생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73년생 가 보아야만 납득 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생 학업 막혀 고민할 운

5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76년생 일은 삼가 하라
88년생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생긴다

55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67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79년생 명쾌하게 해결하는 기쁨이 있다
91년생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말라

58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두라
70년생 길동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82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다
94년생 같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0년생 동쪽 물기로 가지 말것
62년생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라
74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기쁠이 생긴다
86년생 밀에 꿀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98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53년생 담담한 일이 풀리 것이다
65년생 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77년생 문서 처리 다음으로 미루자
89년생 필요 없는 생각 많은 하루

56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할리라
68년생 희소식 거래가 성사되는 운이라
80년생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마저 내어 주라
92년생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 진다

59년생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71년생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리라
83년생 남자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날
95년생 기분 좋게 금전 지출 하는 날

장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직령

▶ 7월 25일 목요일

농업회사법인 국일항공, 온기나눔 캠페인 동참

영광군에 에어컨 10대 기탁

안전 감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용남 대표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기탁하게 됐다”며 “국일항공은 군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일항공은 항공제제, 드론 교육, 드론 항공 활용 등 드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0년 7월 영광군에 착공한 145호점(호남국제드론시관학교)을 시작으로 2021년 200만원, 2022년 300만원, 지난해 에어컨 10대를 기탁하는 등 매년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년 여름에는 영광군드론협회와 드론을 이용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래미 해안 등에서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제시판

결혼

△김용석(남도일보선임기자·남도비즈 대표)·정혜숙씨 장남, 박채석·김혜경씨 차녀 소정양=7월28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52 더시그너스웨딩홀 3층 피오레홀(한국교원공제회관)

알림

△아동일보보호상당·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당, 광주영아일보보호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

전화 062-370-7030 | 팩스 062-385-5400 | 이메일 gndn2018@naver.com